

## 2015-임시 울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간 사 최재영

의 장 정용환

1. 회의일시: 2015. 8. 26.(수) 14시30분 ~ 15시
2. 장 소: 행정본관 3층 소회의실
3. 참석자(9명)
  - 교수평의원: 김이두(교수협의회 회장), 손영식(교수협의회 부회장), 최윤락(교수협의회 부회장), 전성표(기획처장)
  - 학생평의원: 서병익(공과대학생회장)
  - 직원평의원: 박수동(총무처장), 장준민(노동조합위원장)
  - 외부인사평의원: 정용환(총동문회 수석부회장), 김규식(총동문회 상임이사)
  - 간 사: 최재영(기획처 기획평가팀 대리)
4. 불참자: 정훈용(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), 이상민(총학생회장)
5. 성원보고: 간사
  - 재적 평의원 총 11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함.
6. 회의내용
  - 정용환 의장: 시작 전에 한 말씀드리겠다. 금일 본 회의 장소에 15시부터 타 회의가 급하게 잡혔다. 양해를 부탁드린다. 지금부터 2015학년도 임시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겠다.
  - 손영식 의원: 무슨 회의인가?
  - 전성표 의원: 급하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가 잡혔다. 위원 중 한 분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15시에 회의가 잡혔다.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.
  - 김이두 의원: 회의가 길어지면 장소를 옮겨서 하자.

- 정용환 의장: 알겠다. 성원 보고는 어떠한가
- 최재영 간사: 총 11명 중 9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한다.
- 정용환 의장: 성원보고가 되었으므로 임시회의 개최를 선언한다. 심의안건은 전성표 의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린다.
- 전성표 의원: 약간복잡하다.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즉,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최근에 관심을 끄는 다문화 전공을 가르치려했고, 교육행정 전공을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전공으로 바꾸고자 교육부 구두 질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. 그리고는 전공명칭 변경을 기획처에 신청하였고, 기획처에서 관련 학칙개정을 하였다. 하지만 올해 교육부에 서면 보고 시 승인불허로 공문이 내려왔다.  
올해 1학기에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전공으로 신입생을 뽑았기에, 급하게 담당 부서에서 당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 설명을 하였다. 교육부에서는 원상 복귀 후 다시 승인 신청을 해라, 그러면 교육부 승인 후 현재 있는 학생을 그때 졸업시키자고 구두 협조기 완료되었다. 그래서 교육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전공명칭변경에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.
- 최윤락 의원: 승인이 왜 불허되었는가
- 전성표 의원: 첫째로 교육부에서는 교육행정과 다문화교육 명칭 레벨이 안맞다. 둘째로 이전 담당자는 OK 였는데, 담당자가 바뀌고는 불허상태이다.
- 최윤락 의원: 내년에는 승인된다는 보장이 되는가
- 전성표 의원: 보장이 되지는 않는데, 일단 방문 시 구두로 협의되었다고 알고 있다.
- 손영식 의원: 구두는 구속력이 없다. 입학한 학생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
- 전성표 의원: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 후 이해를 구했다.
- 정용환 의장: 그러면 기타 사항이 있는가
- 손영식 의원: 의결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
- 정용환 의장: 심의사항이다. 특수대학원 학칙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의 없으시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다.
- 의원 전원: “이의사항 없음”
- 정용환 의장: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의원 분들의 소개가 있겠다. 직원대표 총무처장 박수동 의원, 동문대표 총 동문회 상임이사 김규식의원 이다.

- 박수동 의원, 김규식 의원: 반갑습니다. 잘부탁드립니다.
- 정용환 의장: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.
- 김이두 의원: 대학평의원회가 1년에 3번 한다. 이번은 임시회의인데, 간단한 내용이 끝났기에 대학평의원회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였다.
- 정용환 의장: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인가
- 김이두 의원: 규정에 따르면 전원이 참석하면 올릴 수 있다.
- 전성표 의원: 정확히 말하면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
- 김이두 의원: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.
- 정용환 의장: 안건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동의여부를 보겠다.
- 전성표 의원: 일단 안건을 말씀해주셔야 동의여부를 물을 수 있다.
- 김이두 의원: 대학 평의원회 기능에 대학발전에 대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고,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이다. 나누어 드린 자료 첫 페이지를 보자.
- 전성표 의원: 김 교수님
- 김이두 의원: 1 페이지만 설명하겠다.
- 전성표 의원: 안건이 채택이 되어야 설명이 가능한데, 자료를 보니 이 건은 의원들이 준비가 되지않은 사항으로 보인다. 안건으로 채택이 될지 결정이 되고나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
- 손영식 의원: 그래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
- 전성표 의원: 아니다. 안건 채택에 대한 여부를 묻고 채택이 된다면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
- 김이두 의원: 1페이지만 설명을 하겠다.
- 전성표 의원: 아니다.
- 손영식 의원: 미치겠네.
- 전성표 의원: 미치는 것이 아니고, 규정에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있는데, 이것이 누가 요청해서 만든 문구나 하면 김성득2 교수가 요청해서 만든 내용이다. 여기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지도 않는데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인 행동이다.
- 손영식 의원: 설명을 안하고 채택이 되는가
- 전성표 의원: 채택하고 설명이다
- 손영식 의원: 설명해야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.
- 정용환 의장: 규정을 살펴보니, 7일 전에 안건이 통보되어야 하고, 3차 회의도 남

아있는 상황이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

- 김이두 의원: 그러면 의사를 물어보자
- 손영식 의원: 설명을 듣고 할지말지 결정을 하자
- 정용환 의장: 설명을 들으면 안전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가
- 김이두 의원: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다. 우리 학교 규정을 보면 등심위에서는 등록금만 다루어야하는데, 예산, 결산사항이 모두 다루어지고 있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11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손영식 의원: 보충설명을 하겠다.
- 전성표 의원: 말을 돌아가면서 하자
- 손영식 의원: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.
- 전성표 의원: 등심위에 대한 사항이 잘못되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손영식 의원: 우리 등심위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.
- 김이두 의원: 등심위에서 예산의 심의의결을 다룰 수 있는 문구가 있는가
- 전성표 의원: 등심위 규정을 다시 확인해보겠다.
- 김이두 의원: 지금 확인해보라
- 전성표 의원: 해당 건은 채택된 안전이 아니기에 지금 얘기할 수 없다
- 손영식 의원: 뭐가 두려우신가
- 전성표 의원: 뭐가 두렵다는 건가, 학교를 악덕한 조직으로 몰아가지마라
- 손영식 의원: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. 왜냐하면 규정에 명시된 대로 등록금만 심의하지 않고 예산까지 심의의결을 하였기 때문이다
- 전성표 의원: 평의회회 규정 상 해당 사항은 안전으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.
- 손영식 의원: 안전이 아니라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
- 전성표 의원: 철학과 교수가 이게 논리적이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, 안전으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.
- 손영식 의원: 일단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자
- 전성표 의원: 제목만 보고도 해당 내용이 파악이 된다
- 손영식 의원: 제목만 보고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
- 전성표 의원: 제목만 보고도 이것을 모르시겠는가
- 손영식 의원: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을 본인이라 생각하지마라
- 김이두 의원: 등심위에 들어가는 학생대표에게 학생관련 예산만 설명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;

- 서병익 의원: 제가 지난번 등심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, 참여했던 부회장에게 듣기로는 등록금만 얘기했다고 한다
- 김이두 의원: 그렇지, 그러나 등심위에서 학교예산 대부분을 심사의결을 했다고 한다
- 손영식 의원: 규정에 어긋난 짓을 한거다
- 전성표 의원: 오늘의 안건은 1건이며, 통과가 되었다.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등심위 관련 안건은 평의원회 규정상 전원 찬성이 되어야 안건으로 채택 될 수 있는데,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. 따라서 더 이상 안건이 아닌 부분이기에 얘기할 수 없다.
- 김이두 의원: 누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가
- 전성표 의원: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
- 박수동 의원: 저도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찬성하지 않는다
- 김이두 의원: 그러면 다음 평의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공부하고 오시라
- 장준민 의원: 의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다
- 정용환 의장: 그렇지 않아도 발언권을 드리려고 했다
- 장준민 의원: 평의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도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학칙변경 건은 서면부의로 진행했으면 한다. 다른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회의가 진행되는 점은 비효율적이다. 아니면 진지하게 안건이 될지 말지가 논의되어야하지 않는가
- 전성표 의원: 아니다 이 건은 잘 못 알고 계신 것이다.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규정상 안건이 아니기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채택되지 않은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해당 규정은 작년에 교수 대표 김성득2의 요청으로 개정된 것이다
- 손영식 의원: 아니 대학평의원회에 이런 것도 얘기도 못하나
- 전성표 의원: 아니 안건으로 채택되어야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
- 정용환 의장: 자 이제 더 이상의 회의가 불가능 한 것 같다. 해당 사항은 11월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논의하자
- 김이두 의원: 11월에 올리겠다
- 김이두 의원: 회의록에 남겨달라
- 정용환 의장: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.